

전주 덕진연못(德津池)의 용도 및 축조시기와 장소성 변화*

조성욱**

Use and Construction Period and Change of Placeness in Deokjin Pond in JeonJu*

Sungwook Cho**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전주 덕진연못의 용도와 축조시기 그리고 장소성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은, 첫째, '덕진'의 지명은 '덕진(德津)'이 원래 사용되었던 한자이고, 나중에 상징성을 부여해서 '덕진(德眞)'으로도 기록했다. 둘째, 덕진연못으로 유입되는 물줄기는 2개이며, 제방은 건지산의 산줄기(46m)와 가련산(72m)를 연결하는 약 400m이고 해발고도는 약 28m이다. 셋째, 덕진연못은 농업용 저수지가 아니라 풍수지리에 의해서 전주 지역의 서북쪽의 허함을 보강하기 위해 조성한 비보풍수용 시설물이다. 넷째, 덕진연못은 상징적인 행사(단오제, 용왕제), 풍수지리설의 도입 시기(후백제 시대), 건지산 중심의 전주성 축성(고려시대), 전주의 공간 범위 변화(후백제와 전주성 시기), 고려시대 이규보의 기록(1200년경) 등을 고려할 때, 900년에서 1200년 사이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덕진연못은 풍수지리 사상에 의해 조성되었기 때문에 조성 초기부터 상징적인 장소로 인식되었으며, 용왕제와 단오행사가 이루어졌다. 1929년 덕진역의 개설과 함께 공립공원과 종합경기장으로의 역할을 추가하였고, 장소의 공간적 범위도 연못뿐 아니라 주변의 운동장까지로 확장되었다.

주요어 : 덕진연못, 풍수지리사상, 비보풍수, 건지산, 장소의 공간적 범위

Abstract : In this study, we looked at the purpose of use, the period of construction, and the process of changing the placeness on Deokjin Pond in JeonJu.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the name of 'Deokjin' was Chinese characters originally used by Deokjin (德津), and later it was recorded as Deokjin (德眞) by giving symbolism. Second, there are two streams of water flowing into Deokjin Pond, and the embankment is about 400m connecting Geonji Mountain (46m) and Garyeon Mountain (72m) and the altitude is about 28m above sea level. Third, Deokjin Pond is not for the agricultural reservoir, but a facility to remedy topographical defects by Feng Shui Ideology to reinforce the weakness of the northwestern part of JeonJu. Fourth, the period of Deokjin Pond can be estimate to have been built between 900 and 1,200 years, by considering the symbolic events (Dano and Dragon King festival), the period of introduction of Feng Shui Ideology, the construction of JeonJu Fortress as the center of Mt. Geonji, change of spatial range of JeonJu, records of Lee Gyu-bo (1200 years). Fifth, Deokjin Pond was recognized as a symbolic place from the time of its construction because it was constructed by Feng Shui Ideology, and the Dragon King and Dano Festival were held. With the opening of Deokjin railroad station in 1929, the role of public parks and general stadiums was added, and the range of the place was extended not only to pond area but also to nearby playground region.

Key Words : Deokjin Pond, Feng Shui Ideology, Remedy topographical defects by Feng Shui, Geonji Mountain, Spatial range of place

*이 논문은 2021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전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chosswww@jbnu.ac.kr)

I. 서론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하는 덕진연못(德津池, 면적 99,174m²)은 시민공원(총면적 148,761m²)으로서 전주 시민의 휴식처이자, 도시 중심부에서 멀지 않아 접근이 쉽고 각종 상징물이 설치된 전주시민의 상징적인 장소이다. 상징성 측면에서 도심부에 가까운 다가공원이 주로 일제강점기 이후 상징성의 장소였다면, 덕진연못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닌 장소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덕진연못은 농업용 저수지가 아닌 풍수지리의 비보풍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만, 축조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리고 처음에는 덕진연못 자체가 상징의 중심이었으나, 1929년 가까운 곳(약 400m)에 덕진역(철도역)이 개설되고 연못 주변에 공설운동장이 만들어지면서, 덕진연못과 주변 체육시설 지역을 포괄하는 덕진공원으로서 장소성에 변화를 가져왔다.

덕진연못과 주변 지역은 조선시대에는 전주이씨의 시조인 이한(李翰)을 모신 조경단(肇慶壇, 1899년) 앞의 왕실 땅이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17년 이 지역의 대표적인 친일파였던 박기순이 30년간 임대하여 사설공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박기순은 1929년 이 땅을 당시 전주군(전주면)에 기증하게 되고, 전주군은 1934년까지 이곳에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등의 체육시설과 일주도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덕진연못과 주변 지역은 전주의 공립공원과 종합운동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처음 덕진연못이 축조된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 900년 견훤이 후백제의 도움을 전주로 이전하면서 당시 유행하던 풍수지리 사상에 의해 북쪽의 허한 부분을 막기 위해 연못을 축조했다는 설, 고려말(1389년) 전주성의 축성과 함께 풍수지리에 의해서 축조되었다는 설, 전라도 관찰사였으며 당시 풍수지리의 대가였던 이서구(李書九, 1754-1825, 1793년과 1820년 2번 전라도 관찰사 역임)에 의해서 축조되었다는 설, 전라도 관찰사였던 홍경림(洪景霖)이 장계를 올린 1525년(중종) 전주성의 개축과 함께 축조되었다는 설, 전주이씨의 시조묘가 있는 조경단(1899년)의 기운을 보전하기 위해 축조하였다는 설 등이 있다. 그러나 축조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뿐이고, 추정 시기도 너무 넓다.

덕진연못을 조성한 이유(용도)에 대해서는 농업용수용 저수지라는 견해와 풍수지리사상에 의해서 전주 북쪽의 허한 기운을 막기 위해 조성된 비보풍수용 저수지라는 견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풍수지리에 의한 비보풍수 시설물로 인식되고 있다.

덕진연못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주요 지명과 시설은 건지산, 가련산, 조경단, 승금정, 화수각, 물탕거리, 전주성, 용왕각, 덕진공원, 취향정 등이 있으며, 관련 인물로는 후백제 시대의 견훤, 고려시대의 이규보와 최유경, 조선시대의 관찰사였던 홍경림과 이서구 등이 거론된다.

본 연구에서는 덕진연못과 관련하여 3가지 질문, 즉, 첫째, 덕진연못의 용도는 무엇이었나?, 둘째, 덕진연못의 축조시기는 언제인가?, 셋째, 전주의 상징적 장소로서 덕진연못이 의미하는 장소성의 변화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덕진연못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밝히는 것은 앞으로 이 장소의 개발이나 정비 그리고 활용에서 본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덕진연못의 지리적 조건

1. 덕진(德津, 德眞) 지명의 변화

현재 덕진(德津) 연못의 이름에서 ‘진’자는 ‘나루터 진(津)자’를 사용하고 있다. 즉, 크다는 의미의 ‘덕(德)자’와 나루터를 의미하는 ‘진(津)자’가 결합하여, 큰 나루터라는 의미이다. 덕진연못을 ‘덕진지(德津池)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1481)」, 서거정(1420-1488)의 「사가집(四佳集)」, 「중종실록(中宗實錄, 1525)」, 조수삼(1762-1849)의 「추재집(秋齋集)」, 「조선환여승람(1909)」, 「전주부사(全州府史, 1943)」 등이 있다. 그러나 ‘나루터 진(津)자’가 아니고 ‘참 진(眞)자’를 사용하여 ‘덕진지(德眞池)로 기록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 「동국여지(1656)」, 「여지도서(1765)」, 「대동지지(1866)」, 「호남읍지(1895)」, 「증보문헌비고(1906)」 등이 있다(유재영, 1993:22). 그러나 공통적으로 전주성 북쪽 10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어서 동일 지점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두 개의 진(德津, 德眞)자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 발간된 「동국여지승람(1481)」에는

‘진(津)’자를 사용했으나, 이후에 발간된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서는 ‘진(眞)’자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이후 두 한자의 사용이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덕진(德津)’이 먼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는(「동국여지승람」, 1481) 덕진(德津)이 원래 사용되었던 지명으로 보이며, 나중에 상징성을 부여해서 일부 기록에서는 ‘덕진(德眞)’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진(津)’자는 나루터를 의미한다면, ‘진(眞)’자는 지명에 의미를 부가하고 미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43년에 발행된 「전주부사(全州府史)」에서는 전주천의 이동과 관련하여 이곳이 큰 나루터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덕진연못의 축조시기와 나루터로의 이용시기가 동일 시기일 가능성은 의문이다. 현재는 ‘덕진(德津)’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덕진(德津)’이라는 지명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德津洞, 1940년), 전남 영암군 덕진면(德津面),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덕진산성(德津山城, DMZ 내에 위치), 경남 합천군 삼가면 덕진리(德津里), 전남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덕진봉(384.0m, 德津峰), 대전시 유성구 덕진동(德津洞) 등이 있다. 모두 ‘덕진(德津)’으로 한자가 동일하다.

전주(全州)는 조선시대 전라도의 중심지였으며, 1895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 전주부가 되었고, 1896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전라남북도가 분리되었을 때 전라북도 지역의 중심지가 되었다(전주군). 그리고 덕진동은 1940년 이전에는 전주부의 20개 면의 하나였던 이동면의 검암리 지역(학암, 용산, 사평, 검암 등)과 완주군(1935년 전주부와 분리됨) 조촌면의 상가리(하가, 학동, 상가, 덕중, 덕용 등) 지역이었다. 그러다가 1940년 조촌면 상가리 지역이 전주부로 편입되면서 조촌면과 이동면의 일부 지역을 통합하여 덕진연못의 이름을 따서 덕진정이라고 하면서 비로소 행정구역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越智唯七 編著, 1917:345). 1946년 덕진동으로 되었다가, 1957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해서 덕진동 1가와 덕진동 2가로 분리되었고, 1973년 다시 덕진동으로 통합되었다(한글학회, 1981:354). 이와 같이 덕진동은 1940년 이전에는 가련산(可連山)을 중심으로 북쪽은 완주군 조촌면의 상가리(전주천 방면), 남쪽은 전주부 이동면의 검암리로 분리되었던 지역이었으나, 1940년 두 지역을 합하여 덕진동이라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탄생과 함께 덕진동이라는 지역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2. 위치 특성

덕진연못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314~1316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경위도상으로는 북위 35도 51분, 동경 127도 07분에 위치하는, 약 3만여평(99,174m²)의 인공 연못이다(전주시, 2014:124). 현재 덕진공원의 총면적은 148,761m²이고, 이 중 연못은 99,174m²(약 67%)이며, 녹지는 49,587m²(약 33%)이다(그림 1).

덕진연못의 제방은 서쪽으로 만곡된 형태로 축조되었는데(덕진교~무념이), 제방의 길이는 약 400m이며, 높이는 해발 28m, 폭은 약 6m, 수면의 높이는 약 26m이다. 그리고 서쪽 제방 아래(현재 덕진 노인복지회관)는 해발 23m이다(1:5,000 지형도 기준). 따라서 제방의 높이를 기준으로 제방 안쪽은 약 2m, 바깥쪽은 약 5m 정도의 고도차이가 있다. 여수로는 해발 26m 지점이어서 덕진연못의 깊이는 2~3m로 추정된다. 물이 공급되는 하천은 연화천(조경단 방향)과 전북대학교 방향에서부터 흘러오는 물줄기(벽진폭포)의 2개이다. 이 중 연화천의 수량이 훨씬 많다.

덕진연못의 제방은 북쪽의 건지산(乾止山) 산줄기(해발 46m,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와 남쪽의 가련산(可連山, 72m)을 연결하는 약 400여m의 인공제방이다. 북쪽 건지산(100.5m)의 산줄기는 서쪽으로 송천동의 팔학골을 형성하고, 그 남쪽의 산줄기가 덕암마을 뒤로 연결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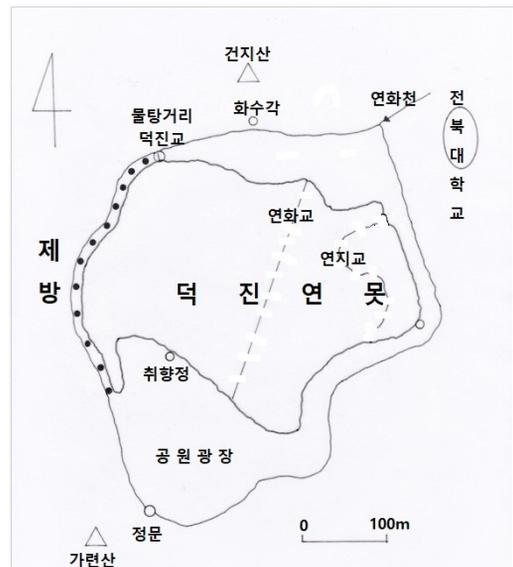


그림 1. 덕진연못과 덕진공원



그림 2. 덕진연못과 주변 지역

어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구 학군단)에서 머문다(해발 46m). 남쪽 아래의 여수로(해발 26m)가 있는 이곳을 물탕거리라고 부르는데(현재 ‘옛날 옴팡집’, 해발 25m), 과거에는 무속행사와 기우제를 지내던 곳(용왕각)으로 추정된다(전주시·전주문화재단, 2017:131). 여수로는 압반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위에는 덕진교(1929년 최초 가설, 1959년 재가설)가 개설되어 있다.

덕진연못 제방 남쪽으로는 기린대로(과거 팔달로)를 경계로 가련산(可連山)과 연결되는데, 가련산은 인공제방을 통해서 건지산과 연결된다는 의미로 풍수지리에 의한 상징적인 지명이다. 가련산 정상에는 1962년에 조성된 6·25 전쟁시 전몰한 학도병의 넋을 기리기 위한 순국학도현충탑이 있다. 가련산은 남쪽의 노구봉(61m, 전주기상대)으로 연결되는데, 남서쪽에는 상가마을이 있다. 가련산에는 전주지방방법원과 검찰청(2019년 혁신 도시로 이전), 전주기상대(2015년 이전), 덕진중학교 등의 공공시설과 백제고분(곽장근, 1990) 등이 있다.

노구봉 아래에 형성된 상가마을은 과거 전주성에서 추탄(전주천을 건너는 지점, 구주마을)을 지나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고, 상가마을 서쪽과 하가마을 남서쪽에는 범람원상의 평탄지인 가리내들(현재는 하가택지개발 지구, 해발 21m)이 있다. 가리내들(뜰)은 전주천과 삼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형성된 범람원 지역이다(그림 2).

그리고 가련산을 경계로 반대쪽인 남동쪽의 평탄지를 사평들(해발 26m)이라고 하는데, 1963년 공설운동장의 건설과 1970년대(1974~78년) 구획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곳은 전주천 제방이 없었을 때(1970년대 완공)는

전주천이 범람하는 범람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모래가 많아서 또는 새롭게 개척된 지역이라고 해서 사평리(沙平里)라고 했다. 가련산의 산록에는 사평마을이 있으며, 사평들의 한가운데에는 들사평리가 있다.

즉, 가련산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덕진연못의 인공 제방으로 건지산 줄기와 연결되며, 남동쪽에는 사평들이 있고, 북서쪽에는 가리내들이 위치하며, 전주천이 남쪽과 서쪽으로 가련산을 휘감으면서 서진하고 있다. 가련산에서 시작되는 물은 덕진연못으로 유입되지는 않고, 전주천으로 흘러간다.

3. 지형 특성

전주의 진산(鎭山)인 북쪽의 건지산(乾止山, 100.5m, 하늘을 의미)과 남쪽 동서학동에 위치하는 곤지산(坤止山, 103m, 땅을 의미)은 풍수상 짝을 이룬다. 건지산의 산줄기는 백두대간의 영취산(1,075.6m, 장수)에서 분기한 금남호남정맥을 거쳐 주화산(565.0m, 진안)에서 분기한 호남정맥의 만덕산(762m, 진안-완주)에서 분기하여 ⇒ 묵방산(527m) ⇒ 기린봉(306m) ⇒ 도당산(132.0m, 인후공원) ⇒ 도천봉(119m) ⇒ 건지산(100.5m)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도천봉(동물원 뒷산)에서 서쪽으로 건지산으로 이어지고, 남쪽으로 뻗어내린 한줄기에 능산(69.1m)이 위치하는데, 능산을 배경으로 서쪽 방향으로 조경단(또는 왕릉)이 조성되어 있다.

덕진연못은 북동쪽으로 도천봉(119m)과 건지산(100.5m), 남쪽으로는 건지산의 줄기인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46m) ⇒ 덕진연못 제방(28m) ⇒ 기린대로(30m) ⇒ 가련산(72m)으로 이어지고, 북서쪽이 터어 있는데 이곳에 제방이 축조되어 있다. 덕진연못으로 유입되는 주요 수원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대젓골(대지동)에서 시작되는 연화천이고, 또 하나는 진골(전북대 내 농생대, 공대, 사범대 산줄기)에서 흘러오는 하천이다.

덕진연못으로 흘러드는 가장 주요한 수원인 연화천은 도천봉(119m)에서 시작되어 ⇒ 조경단이 위치하는 능산(69.1m) ⇒ 조경단 앞 대젓골과 가맛골의 합류점(30.1m) ⇒ 연화천 ⇒ 덕진연못(26m) ⇒ 물탕거리(25m) ⇒ 덕진 노인복지회관(23m) ⇒ 센트럴 아파트 앞(19m) ⇒ 전주천(18m)으로 서쪽으로 가면서 해발고도가 낮아진다.

대젓골의 상류에는 대지동 마을이 있으며(전주동물원 부근), 대지동 남서쪽에는 조경단을 관리하는 전주이씨

의 제각이 있는 용수동 마을이 있고, 용수동의 남쪽에는 조경단(1899년 조성, 도치묘, 덕진릉)이 있다. 조경단이 있는 산은 건지산의 산줄기로 능선(69.1m)이라고 부르며, 조경단 앞에서는 대젓골에서 시작되는 하천과 명지골과 가맛골(가뱃골, 전북대 병원 쪽)의 지류가 합류한다(전주문화원, 2001:240). 이 물(연화천)은 서쪽으로 흘러 덕진연못으로 유입된다.

이후 연화천을 따라서 연화동(탱자동) 마을과 덕암 마을(심금동)이 있으며, 덕암 마을 앞(남쪽 방향)에는 전주 이씨의 화수각(과거 승금정 자리)과 덕진연못이 위치한다. 즉, 연화천 유역에는 상류로부터 대지동, 용수동, 연화 마을, 덕암 마을 등이 있다.

그리고 건지산의 산줄기 중 한 줄기가 전북대 농생대 쪽과 공대 쪽으로 뻗었는데 산줄기 사이의 골짜기를 진골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범대학으로 뻗은 줄기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작은 진골이라고 한다. 진골과 작은 진골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덕진연못으로 유입되는 또 하나의 수원이 된다(현재는 덕진연못과 만나는 지점에 벽진폭포가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연화천에 비해서는 수량이 적다.

1943년에 발행된 「전주부사(상권, 198)」에서는 전주천의 하상변화를 논의하면서(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2014), 덕진동 사평리의 가련산 남동쪽 절벽(구 전주지방법원 부근)을 전주천에 의한 침식단면으로 해석하고, 덕진연못과 전군도로 사이에서 지하 1m 정도에서 하천역과 모래가 나온다는 점을 들어, 현재는 전주천이 가련산의 서쪽으로 흘러 하가리 방향으로 흐르지만, 과거에는 가련산의 동남쪽으로 흘러 덕진연못을 거쳐 송천동의 센트럴파크 아파트 앞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덕진연못은 과거 전주천이 흘렀던 곳인데, 전주천의 유로변경으로 인하여 덕진연못이 구하도(舊河道)가 되었고, 이것을 활용하여 전주 건방(북쪽)의 공허를 메꾸기 위해 제방을 만들고, 물공급을 위한 저장과 관개, 유람을 함께 하는 일거 3득을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과거 언젠가 덕진연못 방향으로 전주천이 흘렀다는 추론에 기인한다. 기린대로(과거 팔달로)를 사이에 두고 남동쪽의 종합경기장이 해발 28m이고, 덕진연못의 제방 높이가 28m인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덕진연못과 전주천의 연결 부분은 약 700m 거리인데, 전주천을 수용하기에는

폭이 좁고, 덕진연못이 전주천의 하천 흔적이라면 가련산의 남쪽 사평들 방향으로 하천침식의 흔적이 있어야 하지만 이를 찾을 수 없다(장호, 1981).

현재 전주천이 삼천과 만나는 지점은 해발 20m로 덕진연못 주변의 해발 28m 보다 훨씬 저지대이다. 또한 덕진종합경기장과 들사평리는 바닥이 자갈과 모래로 되어 있어서 과거 전주천의 범람원 지역으로 추정되지만, 과거 덕진역(1929년 개설)이 있었던 덕진광장부터 동쪽으로는 산지 지역에 속하고, 덕진광장(해발 28m)에서 서쪽 방향의 법원 쪽 전주천(해발 25m)과는 해발고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일 유로변경이 있었다면 인간 거주 이전의 아주 오래전 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의 기린대로를 경계(분수계)로 남서쪽의 종합경기장 주변(사평들)은 전주천의 범람원 영역이고, 덕진연못이 있는 북동쪽은 산지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덕진연못이 과거 전주천이 흘렀던 구하도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덕진연못의 축조시기를 추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덕진연못과 전주천의 수계는 완전히 다르다.

III. 덕진연못의 용도와 축조시기에 대한 논의

1. 덕진연못의 용도에 관한 논의

덕진연못의 용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농업용 저수지가 아닌 풍수지리설에 의한 비보풍수로 전주의 지기를 막기 위한 시설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동국여지승람」 이후 일관되게 제언이 아닌 산천조(山川條)에 기록되고 있다.

고대 수리시설의 유형은 3가지로 볼 수 있다(제천시, 2009:114-118). 첫째는 관개형(灌溉型)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수용량을 극대화하고, 농경지 손실을 최소화하며, 수압을 견디기 위해서 밖으로 만곡형으로 축조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제천의 의림지이다. 둘째는 개전형(開田型)으로 제방축조의 목적이 농업용수의 확보보다는 농경지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제방 밖의 수전구역 상정에 어려움이 있고, 배수중심이면서, 물리면적이 없어서 방조제의 역할을 겸한 것으로 보인다는 특징이 있는데, 김제의 벽골제, 밀양의 수산제, 정읍의

눌제 등이 대표적이다. 셋째는 원지형(園池型)으로 경주의 서출지나 부여의 궁남지와 같이 관개용 제언으로의 역할보다는 정원용으로 축조된 것이다.

덕진연못의 여수로에서 전주천 사이의 거리가 약 700m 정도인데, 주변에 농경지로 이용하기 위한 평지가 적어 덕진연못이 이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개형 저수지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덕진연못의 여수로와 전주천 사이는 여수로 26m에서 전주천 18m로 해발 고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8m 차이), 덕진연못의 제방이 전주천의 범람을 막고 농지확보를 위한 개전형 저수지로서의 역할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의 3개 분류에 의하면 덕진연못의 제방은 관개형이나 개전형 등의 농업용보다는 원지형(정원형)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덕진연못이 정원용으로 만들어졌다면 이에 관계되는 정자 시설 등이 동반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승급정이 1860년에 만들어졌고, 그 이전에는 건흥사라는 절이 있었을 정도이어서, 정원용으로 만들어지고 활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덕진연못은 풍수지리적 측면에서 상징적으로 조성된 연못이라는 의미에서 위의 분류 보다는 풍수형(風水型)이라는 새로운 분류가 적합하다. 덕진연못은 농업용이나 정원용이 아닌 풍수지리사상에 의해서 전주의 지형조건에서 북쪽의 허한 기를 막기 위한 용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풍수지리사상에 의해서 연못이 만들어지고, 이후 부수적으로 정원용으로 활용되었을 수는 있으나, 원래 만든 용도는 풍수사상에 의한 비보풍수 시설물이다.

덕진연못에서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행사 중 가장 중요한 행사가 단오(음력 5월 5일) 행사이다. 단오는 모내기 마치고 이루어지는 점에서 농업과 관련되는 행사 이면서, 덕진연못의 연꽃과 창포와 관련되어 불교관련 행사로 볼 수도 있다(송화섭, 2019). 그리고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용왕제와 기우제 등은 고려시대 성황신앙과 관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덕진연못의 상징적 이용은 고려시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1929년 덕진역의 개설과 함께 공립공원으로 개발되면서 주민들의 참여가 수월해지고 확대되었다.

덕진연못은 건지산이 형성한 2갈래의 계곡물과 이 지역 자체에서 분출되는 용천수(龍泉水)에 의해 수량을 공급 받고 있다. 덕진이 나루터였다는 가설은 전주천이 이곳으로 흘렀다는 가정에 의한 것인데, 덕진연못이 축조

될 당시와 전주천이 흘렀을 가능성과 시기를 일치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덕진연못 주변과 제방의 해발고도가 28m이고, 수면의 높이는 25~26m로, 제방에서 연못 안쪽으로는 2~3m의 고도 차이가 있고, 제방 밖과는 5m 정도의 고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제방 축조시에 밖의 흙보다는 제방 안쪽의 흙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못의 수심은 더 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처음 조성 당시의 주목적은 아니었지만, 연못이 조성된 이후에 뱃놀이, 낚시, 단오제 행사, 용왕제 등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덕진연못의 규모(약 3만평), 상류의 농경지 규모, 하류의 농경지 규모, 공급되는 물의 양, 건지산과 가련산의 연결로로써의 역할, 연결을 의미하는 가련산(可連山)이라는 지명, 제언보다는 산천조에 기록된 점 등을 볼 때, 덕진연못은 농업 관련 시설보다는 풍수지리에 의한 인공적인 산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농업용이나 정원용이 아닌 풍수형의 저수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덕진연못을 단순히 정원용으로 정비하기보다는(전주시, 2014), 전주의 공간적 범위에서의 위치와 지형 그리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 등의 풍수지리적 측면을 고려한 정비가 필요하다.

2. 축조시기에 대한 논의

충북 제천에 위치하는 의림지(義林池)는 김제 벽골제와 같은 삼한시대 축조설, 신라 진흥왕 때의 우륵 축조설, 조선시대 정인지 축조설 등이 있었다. 그러나 2차례의 지질조사 결과(2000년, 2009년), 약 2,000년 전에 인위적으로 유수를 차단하는 단순 형태의 제방을 만들어 저수지의 기능이 시작되었으며, 약 1,200년 전에는 퇴적물의 축적으로 본격적인 제방이 축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다시 5m와 2m 정도의 제방 높임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제천시, 2009:42).

덕진연못이 언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다. 먼저 견훤이 후백제(892~936)의 도읍을 전주로 이전한 900년경 전주에 후백제의 성을 축조하면서 당시에 유행했던 풍수지리사상에 의해서 북쪽의 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조성했다거나, 원래 늪지나 연못이 있었던 곳을 군사용 해자로 사용했다는 후백제 시대설이 있다. 둘째, 연꽃과 용왕신앙, 단오절 행사 등 불교문화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918~1392)에 조성되었다는 설이

표 1. 덕진연못의 기원에 관한 논의들

기원 논의들	이유
1. 후백제 시대설	후백제의 도읍지, 풍수지리설, 해자로 이용(군사용)
2. 고려 시대설	용왕제 거행 장소(이규보), 단오행사, 불교행사(연꽃과 창포), 성황신앙
3. 전주성 축성설	전주성의 기준 문제(건지산, 남문), 풍수지리설
4. 이서구설	풍수지리에 밝은 관찰사, 2번 부임
5. 조정단 관련설	조정단의 기가 빠져 나가는 것을 방지

표 2. 이규보의 진산으로서 건지산의 인식

「신증동국여지승람」 산천조:

건지산(乾止山) : 전주부의 북쪽 6리에 있으며, **진산(鎭山)**이다. 이규보(李奎報)의 기(記)에, “전주에 건지산이 있는데 수목이 울창하여 주(州)의 웅진(雄鎭)이다.” 하였다.

있다. 셋째, 전주부성 축조시(1389년)에 건지산을 주산으로 남문을 축조한 것으로 보아, 이때 북쪽의 허함을 인식하고 덕진연못을 축조했다는 설이 있다. 넷째, 풍수지리와 관련하여 풍수지리에 밝은 관찰사 이서구(李書九, 1754~1825)에 의해 조성되었다는 설이 있다. 다섯째, 전주이씨의 시조묘가 있는 조정단의 기(氣)가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축조했다는 설 등이 있다(표 1).

이상의 5개 논의 중에서 동국여지승람(1481년)의 산천조에 덕진연못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는 그 이전에 이미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선시대 이후인 이서구설이나 조정단 관련설은 가능성이 적다.

전주성(全州城)의 축조시기에 대해서는 고려말경인 1389년 최유경(1388~1389년 재임)에 의해 축조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1734년 조현명(1690~1752)이 풍남문과 전주성을 개축했을 때 남긴 「축성계초(築城啟草)」에서는 전주성이 처음 축조된 시기는 모른다고 기록되어 1389년 축조설도 정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전주읍성의 기초는 적어도 고려 중기 이후부터 존재했고, 고려말 최유경의 개축과 조선 초기에 확장되었다는 추정(이경찬, 2004:86)과 고려 현종(1009~1031) 시기에 전국적으로 성과 축조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에 축조되었을 가능성도 주장되고 있다(장명수, 1994:39). 그러나 당시에는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개경의 나성(1029년) 등을 축조했으나, 주로 거란과의 국경 지역에 천리장성 등을 구축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후방에 위치하는 전주성을 축조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1380년 이성계는 운봉의 황산대첩 이후 전주의 오목대(전주성은

오목대의 서쪽에 위치함)에서 일가친척들과 잔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에 전주성에 대한 기록은 없다.

풍수적 진산(鎭山)은 고을의 입지, 관아의 배치, 종교적 경관(성황사)의 입지와 읍성의 구조에 영향을 준다(최원석, 2014:155).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덕진연못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건지산(乾止山)을 전주지역의 주산 또는 진산으로 고려했을 때 축조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전주성의 정문을 남문으로 한 것은 북쪽 건지산을 진산으로 한 설계로 볼 수 있다(최창조, 1990:241). 따라서 전주성이 축조되었을 때(1389년 추정)는 이미 건지산을 전주지역의 진산(주산)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건지산을 전주의 진산(주산)으로 인식한 것으로 고려시대 이규보(1168~1241)의 기록이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표 2). 이규보가 전주에 근무한 시기(1199~1200년)에 이미 건지산을 전주의 진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건지산을 전주의 진산으로 인식했을 때, 전주성의 정문이 남문이 될 수 있으며, 전주 북서쪽의 허한 기운을 막기 위해서 가련산(可連山)이라는 산명과 건지산과 가련산을 연결하는 덕진연못의 제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덕진연못의 축조 시기는 이규보가 근무했던 1200년 이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진산(鎭山)과 관련된 비보(裨補)는 형국(形局)을 보완하기 위한 비보(조산, 조림, 지명비보), 지맥(地脈) 비보(내맥을 비보하는 경우), 흉상(凶相) 비보(진산의 흉한 형세의 문제점을 보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최원석, 2014:157). 전주성은 몇 번의 개축과 보강작업이 이루어졌는데, 1734년(영조) 조현명이 풍남문과 전주성을 개축

했고(축성계초), 1767년(영조) 전주성의 대화재로 인하여 1768년(영조) 재건축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이서구에 의해서(1794, 정조) 전주의 북서쪽 허를 보강하기 위하여 북쪽 진북사에 산신각을 짓고, 숲정이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1796년(정조) 전주판관 윤광수는 전주성의 동북부에 둘레 100m의 현무지(玄武池)를 조성하였고, 객사 뒷편에는 조산(造山)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은 풍수지리 사상에 의한 비보풍수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전주성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1481년 「동국여지승람」에 이미 덕진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성 기준의 비보풍수와는 관계없이 덕진연못은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풍수지리상으로 전주 북서쪽의 허한 기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시설은 덕진연못과 함께 조선시대에 진북사, 숲정이, 현무지, 조산 등으로 겹겹이 보강이 이루어졌다.

덕진연못의 축조시기에 대한 가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점은 후백제(892~936)의 견훤이 전주로 도읍을 옮긴 시점인 900년으로 볼 수 있다. 당시는 도선대사(827~898) 등에 의해서 풍수지리설이 활발하게 논의되던 시기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후백제 시대에는 이후에 조성된 전주성과는 다른 전주 남쪽 동고산성과 물왕말(중노송동)에 성을 축조하고 현재 전주시 금암동의 거북바위까지를 북쪽의 한계로 생각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당시에 덕진연못까지를 전주의 범위로 생각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김두규·정기호, 2004).

덕진연못의 존재 가능성을 가장 이른 시기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고려시대인 1199년~1200년 사이에 전주목에 근무했던 이규보의 기우제(용왕제) 관련 기록이다(全州祭龍王祈雨文, 「동국이상국집」 제37권). 당시 용왕제가 거행되었다는 기록만 있고 구체적인 장소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송화섭, 2010) 용왕제 거행 장소를 덕진연못의 물탕거리(여수로)로 추정한다면, 이미 이 때(1200년경) 덕진연못이 존재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덕진연못을 중심으로 하는 용왕신앙과 용왕제는 4월 초파일(음력 4월 4일)에 열리는 불교문화이고, 연꽃과 용왕관련 종교 역시 성황신앙 및 불교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단오제(음력 5월 5일) 행사 역시 불교와 관련이 있는 행사라고 볼 때(송화섭, 2010), 이러한 행사와 문화는 이미 고려시대 때부터 존재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덕진연못의 오래된 행사인 단오행사(연꽃과 창

포), 용왕제(기우제) 등의 상징성 있는 행사가 불교문화와 관련되고, 이규보의 용왕제 기록과 건지산 인식의 기록이 1200년 이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덕진연못의 축조시기는 900년에서 1200년대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 즉, 덕진연못의 축조시기는 후백제의 견훤이 전주로 도읍을 옮기고 성을 축조한 900년경부터, 전주의 진산을 건지산으로 인식했던 이규보의 전주 근무 시기(1200년경) 이전으로, 900년~1200년의 300년 사이로 시기를 좁힐 수 있다.

또한 고려시대의 행정구역인 983년(고려 성종)의 12목(전주목)과 1018년(고려 현종) 5도 양계제에서의 8목(전주목) 체제로 행정중심지로서의 전주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덕진연못의 축조시기는 900년대로 더 좁혀질 수도 있다. 즉, 덕진연못은 후백제 시대에서 고려시대 초기 사이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IV. 덕진연못의 장소성과 공간범위 변화

덕진연못의 장소성 변화과정을 덕진연못 주변을 전주군의 공립공원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1929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덕진역이 개설되고 공립공원 및 종합운동장으로 활용되었던 1929년부터 1949년 사이, 그리고 종합운동장 기능이 사라진 1949년 이후의 3개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1929년 이전 : 풍수지리와 상징적 장소

덕진연못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1481년에 발간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처음 나타난다. 전주성의 북쪽 10리에 위치하고 풍수지리에 의해서 서북방으로 전주의 기맥이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건지산과 가련산을 연결하는 9,073척의 제방을 쌓았다는 기록이다(표 3). 그러나 이것은 기존에 존재하는 제방을 설명한 것이지, 이때 축조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따라서 1481년 이전에 이미 덕진연못은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언조(堤堰條)가 아닌 산천조(山川條)에 기록되어 있어서 농업용이 아닌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전주에서 사록 겸 장서기로 근무했던 이규

표 3. 「동국여지승람」과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덕진지 내용

「동국여지승람(1481년)」 전주부 산천조 :

德津池在 北十里府之勢 乾維空缺 氣脈淺焉故西自 可連山, 東屬 乾止山. 築大堤以止 之名德津 周九千七十三尺 (덕진지재 북십리부지지세 건유공결 기맥천연고서자 가련산. 동속 건지산: 축대제이지 지명덕진 주 9073척)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33권, 전라도 전주부 산천조 :

덕진지(德眞池)는 부(府)의 북쪽 10리에 있다. 부의 지세는 서북방이 비어 있어 전주의 기맥(氣脈)이 이쪽으로 새어 버린다. 그러므로 서쪽의 가련산에서 동쪽의 건지산(乾止山) 까지 큰 독을 쌓아 기운을 멈추게 하고 이름을 덕진(德眞)이라 하였으니, 둘레가 9천73자이다. [한국고전종합DB]

표 4.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제37권)」, 전주 용왕제 제문(祭文)

전주에서 용왕(龍王)에게 비를 비는 제문 :

한 나라의 가뭄은 조정에 있는 이들의 수치요, 한 지방의 가뭄은 고을을 지키는 자의 죄라. 생각하건대, 이 남방이 두 경계로 갈라졌으니, 나주(羅州)가 변두리를 돌렸고, 전주(全州)가 그 즈음을 연결했는데, 어찌 저 나주엔 비를 주고 우리 전주만 가물게 하는고, 하늘이 무슨 사(私)가 있어서 그러하랴. 자못 우리들이 정치를 잘못된 것이 그 원인이라, 하늘의 노염을 용서 받을 수 없거든 감히 용왕신에게 먼저 빌겠는가. 그러나 하늘의 뜻(天之淵)은 오직 용왕의 주도하는 바라, 용왕의 간청이라면 하늘이 어찌 듣지 않으랴. 이때에 비를 얻는 것은 관리의 효험이 아니고, 바로 용왕의 공입니다. 이해가 흉년이 되지 않는다면 어찌 그 보답의 제사가 풍부하지 않으리까. [한국고전번역원, 이진영(역), 1979].

표 5. 1525년(조선 중종) 전라도 관찰사 홍경림의 장계

전라도 관찰사 홍경림이 전 현령 정고석 등의 등장을 치계하다(중종 055 20/08/01(무자)) :

전라도 관찰사 홍경림(洪景霖)이, 도내 전주부(全州府)에 사는 품관(品官) 전 현령(縣令) 정고석(鄭考石) 등 50여 인의 등장(等狀)을 치계(馳啓)했다. 그 대략에, “본부(本府)는 다른 주부(州府)와 같은 데가 아니고 곧 우리 태조(太祖)의 왕실(王室)이 발상한 지역인데, 지형이 남쪽은 높고 북쪽은 허하여 바다 기운이 분산하겠기 때문에, 진산(鎭山) 이름을 건지산(乾止山)이라 하고 또한 제방(堤防)을 쌓고서 이름을 덕진(德津)이라 하였으며, 절을 창건(創建)하여 건흥사(乾興寺)라 하고, 또한 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산을 가련산(可連山)이라 이름한 것이 모두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실려 있습니다. 나무꾼을 금단하고 경작을 금단한 지 그 유래가 이미 오랜데, 폐조(廢朝) 때에 총애 받던 녹주(綠珠)가, 건지산 안팎 계곡과 덕진계(德津堤)의 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개간한 것을 반정(反正) 후에 예전처럼 도로 묵혔습니다. 그런데 뒷날 청천 부원군(靑川府院君) 유순정(柳順正)이 공신전(功臣田) 준례에 의해 떼어 받아 개간하여 왕실 고장의 진산이 마침내 빨강계 되었으므로 온 고을 민중들이 팔을 걷어 올리며 통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예전처럼 경작을 금단하고 도로 묵혀 왕실이 발상한 고장을 가꾸게 하소서.” (『中宗實錄』). [한국고전종합DB]

보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1241년)」에는 전주에서(1199~1200년 근무) 용왕제(기우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곳이 어디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덕진연못으로 추정하기도 한다(표 4). 그리고 덕진연못에서 행해지는 단오날의 물맞이 행사를 불교민속의례로 본다면(송화섭, 2019), 덕진연못은 불교문화가 성행했던 고려 시대에 이미 존재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525년 조선 중종 때에 전라도 관찰사 홍경림(洪景霖)이 올린 장계에 따르면, 진산을 건지산(乾止山)이라고

하면서 북쪽의 허기를 막았다는 점, 건흥사라는 절이 있었다는 점, 가련산이 등장하는 점, 경작과 채벌을 금지했다는 점, 중종반정(1506년) 시기를 전후하여 때때로 개인이 개간을 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표 5). 이 장계에서는 이미 건지산을 진산으로 생각했었고, 덕진계가 이미 존재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덕진연못이 기록상으로 조선시대 초기인 1481년(동국여지승람) 이전 에 이미 존재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규보의 기록에

서 나타난 전주 용왕제(기우제)를 지낸 곳이 덕진연못이었다면, 이규보가 근무했던 1200년경에도 덕진연못은 존재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1525년의 장계에 서와 같이 조선시대에 공신전 등으로 개인의 토지가 되기도 하고, 전주의 진산으로 개간이 금지되기도 했던 과정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덕진연못에서 행해지는 의례는 기우제, 용왕제, 단오제라고 할 수 있다(송화섭, 2010:497-509). 지역 주민들에게 덕진연못의 상징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단오절에 행해지는 물맞이 행사이다. 덕진연못의 단오 물맞이(성수로 몸을 씻는 의식) 행사의 역사는 알 수 없으나, 특히 여성과 아이들이 음력 5월 5일 덕진연못의 물로 몸을 씻는 행사이다. 피부병과 부스럼, 신경통을 막아준다는 믿음인데, 덕진연못에서 자라는 연뿌리, 창포뿌리, 줄뿌리의 약효로 추정된다. 전주 8경의 하나인 덕진채련(德津採蓮)은 창포와 연꽃에서 유래하는데, 호남 일대 100리에서 주민들이 모여든 것으로 보인다(송화섭·김경미, 2013)(1938년 신문에서는 3만명 정도가 모였다고 보도됨). 특히 다른 곳에서는 큰 행사가 아닌 단오절 행사가 이 곳 덕진연못에서 크게 행해진다는 측면에서 단오제는 덕진연못의 가장 상징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다.

덕진연못에서 용왕제를 거행했던 창해수교(滄海水敎)라는 종교는 1855년 창교하여, 3대 김현덕(1892~1980, 1935년 덕암마을 이주)으로 이어져 왔는데, 덕암마을 주민들은 김현덕(창교자의 손녀딸)을 용화부인 또는 용화할머니로 불렀으며, 용왕제를 주관했다(전북전통문화연구소, 2010; 이용범, 2012: 서영대 등, 2013).

1929년 이전 덕진연못 주변의 시설물은 1525년 장계에 나오지만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건흥사(乾興寺), 역시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용왕제를 지냈다는 용왕각(龍王閣), 1860년에 관찰사 이시제가 만들었다고 하는 승금정(勝金亭, 현재의 화수각 자리로 추정) 등이 있으나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존재하는 시설물은 1899년 조정단의 조성과 함께 만들어진 전주이씨의 화수각(花樹閣)과 1917년에 박기순이 개인의 정자로 만든 취향정(醉香亭)이 있을 뿐이다. 덕진연못의 상징성에 비해서는 설치되었거나 남아있는 상징물이 적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 시기의 덕진연못이 의미하는 상징적 장소는 덕진연못을 중심으로 연못과 연못 주변 지역만을 의미했다.

2. 1929년~1949년 : 덕진역 개설과 공립공원 및 종합운동장 조성

덕진연못은 1917년(7월) 당시 전주 지역의 토호이면서 친일파였던 박기순(朴基順, 1857~1935)이 30년의 사용허가를 얻어(국유임야 25,443m², 7,710평) 사설공원으로 조성했다. 그리고 자신의 회갑기념으로 취향정을 건립했다(1917년). 그러나 1929년 부근(직선거리 약 400m)에 전주-이리 간 철도선에 덕진역이 개설되면서, 덕진연못 일대를 공립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고, 박기순은 공원조성비 3천원과 함께 사설공원이었던 덕진연못을 전주군 전주면에 기증하였다(전주시, 2014:479).

전주와 군산을 잇는 신작로인 전군가도(현재 기린대로)는 1907~1908년에 건설되었는데, 4차선 신작로로 다가동 - 태평동 - 금암광장 - 덕진 - 군산으로 이어졌고, 덕진연못과 가련산(72m)의 연결지점을 통과했다. 그리고 철도는 1914년에 전주-동이리 간 협궤의 경편철도가 건설되었으나(1914.11~1927.10 운영, 24.9km, 당시 전주역은 과거 전매청 자리), 1929년 정규철도로 재가설되면서(25.3km) 덕진역이 개설되었다. 1929년에 덕진역이 세워지면서 덕진역사(德津驛舍)와 덕진연못 주변에 야구장, 육상경기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공원계획이 추진되었다(전주시, 2014:616). 그리고 1938년 전주부의 시가지 계획을 만들 때, 덕진공원의 공원지역 지정과 덕진역 앞에 덕진광장 조성 등이 계획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주군과 고산군이 통합되어 전주군이 되었는데, 1931년에는 전주군의 전주면이 전주읍으로 승격되었고, 1935년에는 전주부와 완주군이 분리되었다(전주시, 1997; 조성욱, 2017). 따라서 덕진연못의 공립공원 계획이 세워진 시기(1929년)는 전주군(전주면) 시기였으며, 1934년 덕진공원이 완성된 시기에는 전주군 전주읍 시기였다. 그리고 이후 1935년에 전주부와 완주군이 분리되었다.

덕진연못의 물이 빠져 나가는 위치(여수로, 물담거리)에 있는 덕진교는 1929년(소화 4년)~1934년(소화 9년) 사이에 만들어졌으며, 1959년(단기 4292년)에 재가설되어 현재에 이른다. 전북대학교 학생회관 앞에 있는 '덕진공원비(德津公園之碑)'는 1934년에 세워졌는데, 비석 아래에는 1929년부터 1934년에 걸쳐 조성되는 과정을 기록한 '덕진운동장건설비'가 있다. 이 후 덕진운동장에서

표 6. 1929년 공원사무 처리계획(덕진 공립공원 계획)

- (1) 도로 : 전군도로에서 공원입구까지 약 12미*(폭은 10미)의 도로를 신설하고, 공원 내에는 연장 약 1,310미(폭 4미)의 주유도로를 신설하여 교통을 편리하게 한다.
- (2) 야구장 : 공원 내에 199아르 4분의 야구장을 만들고, 관람석의 메인스탠드는 5단 목재로 하고, 토루 스탠드와, 네트, 선수석 등을 만들고, 주위 445미에는 철책으로 두르고, 야구 경기와 연습에 사용한다.
- (3) 육상경기장 : 공원 내에 240아르의 트랙을 만들고 관람석은 토루 스탠드로 하고, 주위 566미에 철책을 만들어 일반 육상경기와 연습에 사용하도록 한다.
- (4) 위생시설 : 공원 내에 우물 1개소를 파고, 변소 3개소, 휴지통 2개소를 설치하여 공중의 유람에 편리하도록 한다.
- (5) 식수 : 운동장과 도로 이외 지역에는 전부 도면과 같이 식수를 하여 풍치를 첨가한다.

* '미'는 미터(m)를 의미함.

표 7. '덕진운동장건설비'의 내용(1934년 3월)

1. 도로 : 일주도로 1,830m(공사비 박기순 3,000원 기부금)
2. 체육시설 : 야구장(19,941m²), 육상경기장(21,461m²), 정구장(3,379m²), 경기장 연결도로 1,320m(공사비 미야자키 요시즈구(宮崎吉造) 5,000원 기부금)

는 전주의 부승격 기념 자전거 경기대회(1935.10.17)와 완주군 청원 운동회(1935.11.1) 등 전주부와 완주군의 행사가 열리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공원사무처리계획서」(1929년 9월 17일부 신청서에 첨부된 내용; 전주시 2014:479)에 따르면, 덕진연못 일대 10여 정보의 국유임야를 대부 받아, 공중의 운동을 위한 체육보건과 제반의 경기연습을 할 수 있도록 공원설비를 시설하고, 야구장, 육상경기장 등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했다. 당시에 계획된 시설로는 일주도로, 야구장, 육상경기장, 위생시설, 식수대 등이다(표 6).

1929년의 계획에 의해서 1929년부터 1934년까지 6년간에 걸쳐, 덕진연못 주변 10여 정보에 일주도로(제방을 따라 폭 4m, 길이 1,830m), 야구장, 육상경기장, 위생시설, 식수 등을 설치했다(표 7).

이후 1938년 전주부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덕진공원으로 최초 지정고시(조선총독부 고시 제403호, 1938.5)되면서, 45,000평의 면적에 30,000평의 연못, 연못 중 13,000평의 연꽃지가 공원지역으로 고시되었다. 이후 1966년에 공원시설로 결정되었고(건설부고시 제2118호), 1974년 공원 내 소나무의 고사와 함께 덕진공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1975.8) 식수운동이 전개되었으며, 1978년에는 시민공원으로 결정고시(건설부 고시 제100호, 1978.4) 되었다.

이 시기의 덕진연못이 의미하는 상징적 장소는 덕진연못과 주변지역 뿐만이 아니라, 종합운동장이 설치된

현재의 전북대학교 일부 지역까지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었다.

3. 1949년 이후 : 전북대학교와 전주시민공원

1949년 전주의 종합운동장 기능이 중노송동의 인봉리로 이전되면서, 덕진공원 부지는 향교재단의 소유지로 변했고, 1952년 전북대학교가 개교하면서 일부(운동장 부분)가 전북대학교 부지로 활용되었다.¹⁾

전북대학교는 해방 후에 설립된 도립 이리농과대학(1947.10.15., 이리시), 향교재단이 설립한 전주명륜학원(1948.8.1., 전주시), 군산대학관(1948년, 군산시)을 통합하여, 1951년 10월 국립전북대학교 설립의 인가를 받아, 1952년에 5개 대학으로 개교하였다(전북대학교, 1992; 전북대학교 설립 향교재단 기적비, 2010).

설립 당시 대학본부와 문리과대학 및 법과대학은 객사 등 전주 시내의 여러 시설에 분산되어 있었고, 공과대학과 농과대학은 이리시, 상과대학은 군산시에 분산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1953년 덕진운동장으로 사용되던 부지에 신축 교사를 마련하고, 1954년 문리과 대학(등록문화재 766호), 1955년 대학 본부(등록문화재 765호)와 법정대학, 1957년에 상과대학과 중앙도서관(등록문화재 767호), 1963년에 농과대학, 1974년에 공과대학이 전주로 이전하였다.²⁾

이와 같이 1949년 중노송동의 인봉리에 조성된 공설



그림 3. 덕진연못 주변의 변화

출처 : 조선총독부(1937), 국토지리정보원(2015).

운동장(1949~1969)으로 체육시설이 이전되면서, 운동장 기능이 없어진 덕진운동장의 부지에 전북대학교가 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북대학교의 현재 위치는 1934년 조성된 덕진공원과 중첩되며, 현재는 전주시의 소유인 덕진연못을 제외하고는 과거 덕진운동장의 부지가 전북대학교의 부지가 되었다.

덕진연못은 용왕제(기우제, 용왕각, 물탕거리), 성황제(토착신앙), 단오제(연꽃과 창포물) 등의 장소로 활용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단오물맞이(단오절), 연꽃문화축제(7월 중순), 용왕제(용신제, 4월 초파일) 등의 행사가 거행되고 있는 전주 시민의 상징적인 장소이다.

1975년에는 연못 한 가운데(중도)에 연화정을 만들고,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연결하는 현수교를 건설했으며(연화교, 1980), 1978년 5월에는 연화천 상류(대짚골)에 전주동물원이 개장되었다. 이후 1998년에는 동편의 연꽃 사이를 통과하는 목조다리를 건설했다(연지교와 연화정). 2019년~2021년에는 연화교를 철거하고 석교형태의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였다(길이 260m, 폭 3.3m).

이와 같이 덕진공원 내의 덕진운동장은 1934년부터 전주시민들의 종합운동장으로 이용되다가, 1949년 중노송동 인봉리 방죽을 매워 건설한 공설운동장과 경마장(현재 문화촌 지역)으로 그 기능을 이전하였다. 그리고 1963년 전주에서 개최된 전국체육대회에 맞추어 덕진동 사평리에 공설종합운동장이 건설됨으로써, 전주시의 종합운동장 기능이 다시 덕진동으로 이전되었다.

또한 덕진연못으로 흘러드는 수원의 감소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덕진호수 수질개선 사업

(‘덕진공원 LID[Low Impact Development]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이 덕진공원 유역 3,94km² 지역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송천동과 금암동을 연결하는 조경단로에 생태통로 연결 사업(2019년, 길이 34m, 폭 14m)과 소리문화전당 앞에 생태육교를 건설할 예정이다.

덕진공원에는 야외공연장(508석)과 시비(詩碑), 동학 관련 기념비, 법조 3성 기념비 등 20여개의 기념물이 조성되어 있으며, 용왕제와 전주시민들의 각종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덕진공원 내에 세워진 주요 시설물로는 화수각(花樹閣, 1899), 취향정(1917) 그리고 최영희 공덕비(1958), 시민현장비(1972), 덕진공원비(1974), 김용진 공적비(1974), 간재 유허비(1976), 신석정 시비(1976), 어린이현장비(1976), 김일두 기적비(1979) 등이 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동학관련 기념물로 전봉준 동상(1981), 김개남 장군 추모비(1993), 손화중 장군 추모비(1998)가 건립되었으며, 이철균 시비(1992), 김해강 시비(1993) 그리고 한국법조 3성 동상(1999), 신근 시비(2003) 등의 이 지역의 상징물이 세워졌다.

용왕각, 건흥사, 승금정 등은 기록에는 있으나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화수각(1899)과 취향정(1917)이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시설물이고, 나머지 상징물들은 대부분 1970년대 이후 설치된 것이다(표 8).

이 시기의 덕진연못이 의미하는 상징적 장소는 덕진연못을 중심으로 한 시민공원 지역으로 다시 축소되었다. 그리고 당시 교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덕진역(1929~1981) 또한 전주시내에서 전라선의 외곽 이전으로 폐지되었다.

표 8. 덕진공원 상징시설물의 시기별 분류

시기별	상징물
1910년 이전	용왕각(龍王閣, 고려시대 추정, 현재는 없음, 위치는 물당거리 추정) 진흥사(乾興寺, 고려시대 추정, 현재 위치 불명, 현재는 없음) 승금정(勝金亭, 1860년 관찰사 이시재 창건, 현재의 화수각 자리 추정) 화수각(花樹閣, 1899년 승금정 자리, 조경단 설치와 함께 만들어짐)
1910년~1945년	취향정(1917년, 친일파인 박기순의 회갑 기념으로 건립) 덕진운동장 건설비(1934년, 전북대 경내)
1946년~1979년	최영희 장군 공덕비(1921~2006, 1950년 8사단 주둔, 1958년), 시민현장비(1972), 덕진공원비(1974), 어린이현장비(1976년), 김용진 공적비(1974, 무남이에서 이전, 연지문(1974년), 간재 전우 유희비(1841~1922, 국권회복운동, 1976년), 신석정(1907~1974, 시비, 1976년), 추산 김일두 기적비(1891~1955, 독립운동, 1979년)
1980년~1999년	전봉준 동상(1981), 김개남 장군 추모비(1993), 손화중 장군 추모비(1998), 이철균(1927~1987, 시비, 1992), 김해강(1903~1987, 시비, 1993) 한국법조 3성 동상(김병로, 최대교, 김홍섭, 1999년), 고려시대 삼층석탑(왕궁면, 1922년 객사로 이전, 이후 덕진으로 이전)
2000년도 이후	백양촌 신근(1916~2003, 시비, 2003년)

V. 결론

덕진연못은 전라도의 중심도시였던 전주의 풍수지리적 결점을 보강하기 위해 비보풍수로 조성된 인공저수지이다. 그러나 언제 축조되었는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덕진연못의 용도문제와 축조시기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 상징적 장소로서 덕진연못의 장소적 의미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덕진의 지명은 '덕진(德津)'이 원래 사용되었던 지명으로 보이며, 나중에 상징성을 부여해서 '덕진(德眞)'으로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덕진(德津)'이라는 지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의 행정구역명인 덕진동은 1940년에 전주부와 완주군의 일부 지역을 합하여 만들어진 행정구역으로 동명은 덕진연못에서 유래했다.

둘째, 덕진연못으로 유입되는 물줄기는 건지산의 산줄기에 의해 형성된 북동쪽의 대젓골과 명지골(가맷골)의 물줄기가 합해진 연화천과 남동쪽의 진골에서 흘러오는 물줄기 등 2개의 물줄기로 이루어져 있다. 덕진연못은 이 두 물줄기가 합해지는 지점에 위치하며, 약 700m의 짧은 거리로 서북쪽의 전주천으로 유입된다. 덕진연못의 제방은 건지산의 산줄기(46m)와 가련산(72m)

을 연결하는 약 400m의 제방으로 해발고도는 약 28m이다.

셋째, 덕진연못의 용도는 농업용이 아닌 풍수지리설에 의한 인공적인 연못이며, 풍수지리사상에 의해서 전주 지역의 서북쪽의 허함을 보강하기 위한 비보풍수용 시설물이다. 따라서 농업용의 관개형 또는 개전형이나, 정원용도의 원지형이 아닌 풍수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넷째, 덕진연못이 축조된 시기에 대한 논의는 5개의 설이 있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행사(단오제, 용왕제), 풍수지리설의 도입시기(후백제 시대), 건지산을 주산으로 하는 전주 전주성의 축성(고려시대 말기), 전주의 공간 범위 변화(후백제 시기와 전주성 시기), 고려시대 이규보의 기록(1200년경) 등을 고려할 때, 덕진연못이 축조된 시기는 전주가 후백제의 도읍이 되었던 900년부터 이규보가 건지산을 전주의 진산으로 인식했던 1200년 사이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시기를 더 좁힌다면 후백제 시대에서 고려시대 초기인 서기 900년대로 추정할 수 있다.

다섯째, 덕진연못은 풍수지리 사상에 근거하여 조성되었기 때문에 조성 초기부터 상징적인 장소로 용왕제와 단오행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29년 덕진역의 개설과 공립공원 조성으로 공립공원과 종합경기장으로의 역할을 추가하였고, 장소의 공간적 범위도 연못뿐 아니

라 주변의 운동장 시설까지로 확장되었다. 이후에 경기장 지역에는 전북대가 위치하게 되었고, 덕진연못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공원은 전주시민의 상징성 장소로서 많은 상징물이 조성되었다.

덕진연못은 오래전부터 풍수지리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왔었고, 조성된 연못을 중심으로 단오제와 용왕제 등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지역 주민들의 상징적인 장소였다. 전주의 상징적인 장소로서 덕진연못의 공간적 범위는 1929년 이전에는 연못과 그 주변 지역에 한정되었으나, 1929년 덕진역의 개설과 함께 국립공원과 종합운동장이 조성됨으로써 덕진연못이 의미하는 공간적 범위는 주변 지역까지로 확장되었다. 특히 1929년에 개설된 전라선 철도의 덕진역은 더 넓은 지역의 주민 방문을 가능하게 하여, 상징적인 장소로서 덕진연못에 대한 인식과 의미를 강화시켰다. 그러나 1949년 이후 종합운동장 기능의 이전과 그 장소에 전북대학교가 위치함으로써, 덕진연못이 의미하는 장소의 범위는 다시 연못 중심으로 축소되었다.

앞으로 덕진연못은 전주시민들의 상징적인 장소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덕진연못의 역사성 및 상징성과 함께, 수량공급과 오염문제 해결, 생태적 연결, 전주시의 다른 상징 장소와의 연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 덕진연못의 원래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註

- 1) 전북대학교의 부지확장은 당시 국유지였던 덕진연못과 그 주변의 7,733평으로 시작하였다. 현재 이 부지는 전주시의 시민공원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후 1953년 6월에는 덕진운동장이었던 국유지 21,185평을 확보하였다(1963년 전북대학교로 소유권 이전). 그리고 1964년에는 학교 주변의 조선 구황실 입야 134만 4천평 중 일부인 76만 3,470평을 매입하였다. 이후 1972년 일부 부지를 교지에 편입하여 현재는 총 79만 8,923평이 되었다(전북대학교 60년사, 2007:133).
- 2) 전북대학교는 1951년10월 6일에 국립 전북대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952년 4월에 최초 입학시험 실시하고, 9월 2일에 김두헌 초대총장이 임명되었

다(전북대학교 60년사, 2007:706). 1953년 6월 덕진동 국유지 21,185평(공설운동장 부지)을 교지로 확정하였으며, 문리과대학 건물 준공(1954.10.1.), 법정대학 이전(1955.10.1.), 대학본부 이전(1955.10.3.)이 이루어졌다(전북대학교 60년사, 2007:715).

참고문헌

곽장근 1990, “전주시 덕진동 백제 고분 조사 보고” 전북사학, 13, 1-31.

김두규·정기호, 2004, “후백제 도읍지 전주의 해석 -풍수지리의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3), 15-25.

서영대·이용범·장장식·강영경·홍태한·송화섭·김광한·김경미, 2013, 「전주용왕제연구, 서울: 민속원.

송화섭, 2010, “전주 덕진연못의 성지 인식(聖地 認識)과 관련 의례(儀禮),” 지방사와 지방문화, 13(1), 477-518.

송화섭, 2019, “한국 물맞이문화의 불교민속의례적 성격” 종교문화연구, 32, 119-153.

송화섭·김경미, 2013, “1930년대 전주 덕진연못의 단오물맞이: 1938년 7월 18일 동아일보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6(1), 165-197.

유재영, 1993, 「전북전래지명총람, 서울: 민음사.

이경찬, 2004, “전주의 도시형성과정과 고대·중세의 도시형태,” 「지도로 찾아가는 도시의 역사, 전주역사박물관, 45-103.

이용범, 2012, “전주 용왕제의 역사적 변화와 특징” 남도민속연구, 25, 109-133.

장명수, 1994, 「성곽발달과 도시계획 연구 -전주부성을 중심으로-, 서울: 학연문화사.

장호, 1981, “전주시가 매몰퇴적층의 퇴적환경과 퇴적시기” 전북대 사대논문집, 7, 63-69.

전북대학교, 1992, 「전북대학교 45년사(1947-1992)」.

전북대학교, 2007, 「전북대학교 60년사」.

전북전통문화연구소(사), 2010, 「전주용왕제복원 연구보고서」.

전주면, 1929.9.27, 「공원사무처리계획서」.

전주문화원, 2001, 「지명으로 보는 전주 백년, 서울: 신아출판사.

전주부, 1943, 「전주부사(상, 하)」, 한국지리풍속지총서.

전주시, 1997, 「전주시사」.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2014, 「수정본 국역 전주 부사」.
전주시, 2014, 「덕진공원 전통정원 조성 기본계획」.
전주시·전주문화재단, 2017, 「전주시 마을조사 ‘동심(洞心) 찾기’(덕진동마을 조사서)」.
제천시, 2009, 「의림지의 탄생 배경과 그 역사성」, 제천 의림지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조성욱, 2017, “전주시의 상대적 저성장에 대한 원인 고찰: 광주 및 대전광역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6(2), 275-289.
조현명, 1734, 「築城啟草(축성계초)」.
최원석, 2014, 「사람의 산 우리 산의 인문학」, 파주: 한길사.
최창조, 1990,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한국 풍수사상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서해문집.
한국고전번역원, 1979,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이진영(역).
한글학회, 1981, 「한국지명총람(12권)」.
越智唯七 編纂, 1917, 「新舊對照 朝鮮全道 府郡面里洞 名稱一覽」, 京城 中央市場.
「東國輿地勝覽」(한국고전종합DB).
「新增東國輿地勝覽」(한국고전종합DB).
「中宗實錄」(한국고전종합DB).

「덕진공원비(德津公園之碑)」, 1934, 전북대학교 경내.
「전북대학교 설립 향교재단 기적비」, 2010, 전북대학교 경내.
국립지리원, 1997, 「1 : 5,000 지형도」(도엽: 전주-55, 56, 65, 66, 67).

국토지리정보원, 2015, 「1 : 50,000 지형도」(도엽: 전주).
조선총독부, 1937, 「1 : 50,000 지형도」(도엽: 고산).

교신 : 조성욱,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chossww@jbnu.ac.kr)

Correspondence : Sungwook Cho, 54896,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Jeonbuk University (Email: chossww@jbnu.ac.kr)

투고접수일: 2021년 3월 17일

심사완료일: 2021년 3월 31일

게재확정일: 2021년 4월 8일

